

연체 땐 77% 가산금, 사전 납부 땐 20% 경감

## 불황에 과태료 납부율 '껑충'

광주, 지난 6월 법 시행 후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지역 주·정차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붙는 반면,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면 20%를 경감시켜 주고 있다.

4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하면 8천원을 감면받아 3만2천원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 실집살이가 꽉꽉해진 시민들이 과태료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 납부를 선택하면서 과태료 납부율이 경총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5일 광주시 각 차자구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해 상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만5천472건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5천533건이 납부돼 징수율이 35.5%에 그쳤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이후인 하반기(7월~11월) 기간에만 7천916건 부과에 6천121건이 납부돼 징수율이 69%에 달했다. 징수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광산구도 상반기 2만7450건 부과에 8천680건 납부로 36%의 징수율을 보였지만, 하반기엔 1만5천963건 부과에 62%인 1만149건이 납부됐다.

속도·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찰의 교통위반 관련 과태료도 징수율도 크게 뛰었다.

광주경찰청 개청 이후인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호위반 등의 과태

료가 15만2천111건이 부과됐고, 이 가운데 10만4천841건이 납부돼 징수율은 68.9%에 그쳤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는 11만4천676건 부과에 8만9천309건이 납부돼 징수율은 77.9%로 뛰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 가량 늘었다.

광주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전에 과태료가 부과돼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 10만851대에 대한 강제인과 공매처분 시행을 분기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가산 과태료마저 거부한 체납자에게는 매월 1.2%의 증가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6개월까지 증가금이 부과되면서 과태료는 최고 77%까지 불어나게 된다. 과태료 납부를 하

지 않을 경우 '가산금 폭탄'을 맞게 되는 절이다.

특히 악성 체납자는 최악의 경우 '감치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사전 납부자들이 많아 납부수입이 높아지고 납부독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면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과태료 할인 혜택은 앞으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남구청 '효사랑 떡국 나눔' 광주시 남구청(청장 홀일봉)은 6일 낮 12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경로당에서 독거노인 등 100여명을 모시고 '신년맞이 효사랑 떡국나눔' 행사를 가졌다.

## 공장·선박에 불 수천만원 피해

공장과 선박에서 잇따라 불이나 수천만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4일 오후 8시20분께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최모(53)씨의 김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140㎡와 김 건조기 등을 태워 6천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김 가공 기계 뒤켠에서 불이 붙었다"는 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

대로 김 건조 기계를 장시간 돌리다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어 오후 11시30분께 목포시 보광동 1가 앞 부두에 정박중이던 10t 규모 어선에서 불이 나 갑판과 레이더 등을 태우고 83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김 가공 기계 뒤켠에서 불이 붙었다"는 한 목격자의 진술을 토

## 취업 미끼로 금품 수수 인터넷 신문 기자 구속

순천경찰서(서장 이상기)는 5일 모 인터넷 신문사 보도국장 오모(49)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김모(여·35)씨 등 2명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360만 원을 받고, B회사 이사를 사임해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최모(48)씨 등에게 2천4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 납치·흉기위협 前 남편

### 택시서 목 졸라 숨지게

북부경찰, 40대 女 조사

광주북부경찰은 5일 자신을 납치한 업종용 택시 운전 기사인 전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장모(여·41)씨를 복잡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모 군부대 유격장 앞 길에서 전 남편 전모(45)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의 한 공인증개사 사무실에서 전 남편인 정씨에게 폭행당한 뒤 정씨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강행 직후 11시에 신고한 뒤 자수했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정씨가 흉기로 위협하며 "공동묘지로 가서 함께 죽자"고 말하자 택시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도리로 정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전 정씨와 이혼한 뒤 혼자 살던 장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남편 집을 자주 오가며 자녀를 돌보았다.

또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네 차례나 이사를 다니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었다.

특히 3주 전엔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남편 대신 친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장씨는 범행 직후 11시에 신고한 뒤 자수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내일침** 7696



## 잘못된 인터넷 정보 때문에…

### 치아교정 20대 女 스스로 목숨 끊어

안 모 대학병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주말에 경비원인 아버지를 따라 학교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최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잇몸이 악하면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도초동학교 4층 화장실에서 A(여·24)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아버지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동

## 음주 뻥소니 병원장 뒤늦게 자수

음주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 난 병원 원장이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광산경찰은 5일 광주 K이비인 후과 원장 김모(47·화순군 화순읍)씨를 특기법상 도주차량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열린 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로 자전거를 탔고 속여 최모(48)씨 등에게 2천4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동방신기 유노윤호 모교에 장학금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사진 앞줄 가운데)가 지난 2일 자신의 모교인 광산구 광일고를 방문해 재학생 6명의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기탁한 것.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노윤호가 지난 2일 자신의 모교인 광산구 광일고를 방문해 재학생 6명의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기탁한 것.

○·2004년 광일고(19회)를 졸업한 유노윤호는 연말연시 바쁜 그룹 활동 속에서도 후배들이 꿈을 키우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돼주기 위해 이날 직접 모교를 방문,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검·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 무 사 권 속 원  
공인증개사 김 김 순

**(주) 옥션코리아** 친절상담/ 062-222-8446  
KBS MBC SBS YTN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 ▶ 근린시설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나주시	290/69	5억4700만원	3억8000만원	시행상기한
오거동	49/51	1억8110만원	9030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구
공동	48/216	8억4500만원	4억6000만원	행복주택사업
수기동	50/103	4억6000만원	2억9800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
신기동	110/257	6억8100만원	3억5000만원	시·시·군·구 4/4종
왕성동	362/993	41억4000만원	21억2000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
자제동	151/213	5억5400만원	3억5400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
금호동	104/234	7억8100만원	3억2760만원	사회복지시설

### ▶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주	55/39	9830만원	4400만원	불로초지구 2단지
백운동	114/28	2억8670만원	1억0600만원	상업·상거지구
누운동	54/33	1억2880만원	7100만원	문화재지구
오거동	112/46	2억2980만원	1억8090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
나주시	312/68	2억400만원	1억1420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
한남동	196/156	3억7100만원	2억1000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
운암동	41/58	1억5000만원	6700만원	한남동 1단지
백운동	52/61	1억2460만원	8720만원	무동지구 2단지
장관동	200/44	8842만원	4952만원	도시기반시설사업
황제동	207/52	6480만원	4533만원	질물초지구 1단지
화정동	39/39	9790만원	6660만원	서석동 2단지
봉산동	89/35	8820만원	6180만원	광성대지구
월동	44/38	8150만원	5710만원	무연증명근

### ▶ 대세대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주	57/1	1억3000만원	8860만원	대주차장 1층
방화동	15	4000만원	2800만원	술집화분전 3층
성촌동	18	4000만원	2800만원	화분전 1층
고성동	20.4	2800만원	1980만원	내정화분전 3층
신기동	25.8	19300만원	7560만원	그린리더 4층
월동	44			